

K-제약바이오가 이끄는 글로벌 성장, 피지컬AI로 도약하는 중소제조현장

- 한성숙 국무총리, 종근당 천안공장에서 제16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 (안건1) 2030년까지 ‘K-제약바이오 프론티어기업’ 200개 발굴·육성
- (안건2) 중소제조현장 데이터 선순환체계 구축으로 피지컬AI 확산

【관련 국정과제】 (안건1) 32.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안건2) 35. 미래 신기술로 성장하고, 글로벌로 도약하는 중소기업

□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29일(목) 오전,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종근당 공장에서 제1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 ①K-제약바이오 프론티어기업 육성방안(복지부·중기부), ②중소제조 피지컬 AI 확산전략(중기부)

○ 보건의료의 근간을 이루는 필수산업이자 우리 경제의 미래를 이끌 핵심 성장동력인 제약바이오 산업의 대표적 현장인 종근당 천안공장을 방문,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가 실제 현장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모여 의견을 주고받았다.

* 참석 : (민간) 종근당 김영주 대표이사, 오토텔릭바이오 김태훈 대표,
(주)임픽스 이상호 대표, 경기대학교 장태우 교수,
가천대학교 박정훈 교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엄승인 전무
(정부) 복지부·중기부 장관, 산업부 차관, 식약처장, 총리비서실장, 국무1·2차장

□ 한 총리는 회의에 앞서 고도화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 종근당 천안공장의 지능형·자율형 생산 현장을 둘러보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제약산업의 노력과 첨단 제조기술의 발전을 확인했다.

○ 특히, AI 이송 시스템을 활용한 원자재 공정을 참관하고, 타정 공정에 적용된 AI 디지털 트윈 기반 시설을 증강현실(AR)로 시연하는 등 작업자와 AI가 협업하는 자율형 공장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도 가졌다.

- 이어서 개최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K-제약바이오 프론티어기업 육성방안」과 「중소제조 피지컬AI 확산 전략」을 논의·발표하였다.

□ 먼저, 「K-제약바이오 프론티어기업 육성방안」을 논의하고, 유망 중소벤처 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 국내 제약바이오 시장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벤처 창업과 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복지부의 보건의료·임상 인프라와 중기부의 벤처 육성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 우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을 매년 50개사*씩 선별해 2030년까지 총 200개사를 육성한다. 선정 기업에는 전담 성장디렉터를 매칭해 최대 5년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R&D 전담은행 투자(600억원)와 기술보증기금 보증(900억원) 등 3년간 1,5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투입해 바이오기업의 자금 공백을 해소할 계획이다.

* 분야별 선정규모 : 신약개발(20개), 의료기기·디지털헬스(20개), 바이오소재·생산기술(10개)

- 또한, AI 신약개발 및 공공 의료데이터 연계를 확대하고 동물대체시험 등 글로벌 규제 대응을 위한 신규 R&D를 추진한다. 임상·인허가·CMC 통합 컨설팅과 부처 공동협의체를 통해 연구개발 이후 임상 진입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 애로를 신속히 해소할 방침이다.

- 아울러 병원 연구자의 창업 여건을 개선해 임상 현장의 연구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글로벌 제약사와의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 및 K-바이오랩허브 등 핵심 인프라를 연계해 혁신생태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다음으로, 중소제조기업의 피지컬AI 도입과 관련 기술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제조 피지컬 AI 확산 전략」을 발표하였다.

- 인공지능 기술이 점차 고도화됨에 따라 지금의 제조현장은 AI와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고 작업하는 자율제조 단계까지 진화하고 있으나, 우리 중소기업의 대응여력은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 이에 정부는 2030년까지 스마트제조혁신에 5조원 이상을 투입하여, 중소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율을 30%에서 50%(3만개)로, AI 도입률을 1%에서 10%(6천개)로 높여 중소기업을 피지컬AI 혁신의 핵심 주체로 육성할 계획이다.
- 우선, 기업의 역량과 수요에 맞춰 단계별 지원을 제공하고, 장비·공정·공장을 아우르는 피지컬AI 선도모델 실증과 국가 AI 핵심성과 확산을 추진한다. 또한, 스마트제조 기술기업의 기술 개발부터 해외 진출까지 지원하여 기술전문 공급기업도 집중 육성할 예정이다.
- 아울러, 제조데이터의 수집·표준화는 물론 자산화를 추진하고, 기존의 인공지능제조플랫폼(KAMP)을 ‘제조AI 24’로 고도화해 데이터가 AI 개발과 제조현장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지역 AI 거점과 실증 인프라를 연계하고 청년·재직자 교육을 강화하여 제조AI 활용을 전국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 한 총리는 “혁신기업이 세계시장으로 나아가고, 첨단기술이 산업현장 곳곳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회의에 참석한 기업인과 전문가들에게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에 대해 기탄없이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하며, “정부도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함께 해법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 안전별 자세한 내용은 별도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총괄>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김지현	(044-200-2056)
		담당자	서기관	박주연	(044-200-2535)
담당 부서 <K-제약바이오 프론티어기업>	보건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과	책임자	과 장	오성일	(044-202-2960)
		담당자	사무관	이지원	(044-204-2969)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윤우	(044-204-7740)
		담당자	사무관	최호성	(044-204-7743)
담당 부서 <중소제조 피지컬AI>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과	책임자	과 장	김민수	(044-204-7260)
		담당자	서기관	기정희	(044-204-7271)
		담당자	사무관	양주연	(044-204-7254)